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강의 18, 이스라엘 갱신, 에스겔 36:16-38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세션 18, 이스라엘의 갱신입니다. 에스겔 36:16-38.

이제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 갖는 일반적인 공식이며, 새로운 문학적 단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8장까지의 이 구절은 이 책의 긍정적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17절에서 시작하여 에스겔의 귀에만 들리는 21절까지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22절부터 38절까지는 유배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공개 소식을 제시합니다. 이 공개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분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인용문으로 소개됩니다. 그 부분은 22절부터 32절, 33절부터 36절, 37절과 38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에스겔에게 보낸 개인적인 메시지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22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공개 메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둘 다 해결을 요구하는 복잡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마치 포로 생활에서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문제는 17절부터 19절까지이고, 두 번째 문제는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읽어 보겠습니다.

죽을 자들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길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느니라. 내가 보기에 그들의 행위는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 흘린 피와 그 땅을 더럽힌 우상들로 인하여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흠뻑하고,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흠뻑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였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이를 때에는 어디서든지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와 백성이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의 땅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하나님은 이 사적인 메시지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에스겔에게 공유하십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나머지 부분에서 공개 메시지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책의 전반부에서 자주 들었던 문제, 즉 사람들의 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서사시에서도 많이 읽는 주제입니다. 그 역사는 실패의 역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죄성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식적 부정함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됩니다. 제사장 에스겔이 아주 잘 이해하는 언어였는데, 여기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제사장 훈련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17절 끝에는 월경 중이던 여자가 부정하다고 여겨 월경이 끝날 때까지 동거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문화적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으로 인한 의식 오염을 설명하는 중요한 제사장 본문인 레위기 15장 19-31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부정함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잠재적으로 그녀의 성적 파트너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에 대한 은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성전에 가면 이 부정함이 생겨나고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레위기 15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정함에서 구별하여 그들 중에서 내 장막을 더럽혀 그 부정함으로 죽는 일이 없게 하라.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으며, 온갖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더러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이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노골적인 죄성과 그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에서 추방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고에서는 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측정하는 온도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는 일반적으로 땅에서 좋은 농작물과 좋은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나쁜 관계는 기근과 토지 관련 일상의 전반적인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쁜 관계의 궁극적인 척도는 그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 사실상 그 땅에서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땅으로 이루어진 이 건전한 삼각 관계는 이제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국의 상실로 인해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19절은 17절이 시작된 것처럼 끝나며, 포로의 이유가 되는 이스라엘의 행위와 행위(분명히 나쁜 행위와 나쁜 행위)의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포로 생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신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같은 순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
20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문제, 즉 하나님 자신의 문제, 즉 포로 생활을 통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개인적 문제를 제시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교는 본질적으로 영토적이었습니다.

너희가 한 땅에 거하여 그 땅의 신을 경배하였으니 그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지요 너희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셨느니라 비이스라엘인들은 포로 생활을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거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잃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국가 최고의 신인 마르둑의 정복 세력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섭리로 행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대리자로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매우 정교한 신학적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서 백성을 쫓아내면서 여호와의 명성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의 땅을 떠나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별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강력하지 않았죠? 그는 그 땅을 포기해야 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다른 신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 국제문화에 있어서 야훼는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분의 명성은 흔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독되었습니다. 불경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신성함을 존중하지 않고 평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 즉 유배로 인한 문제입니다. 추방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깔끔한 해결책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포로 생활로 인해 발생했으며,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장에서는 애굽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우상 숭배는 그의 백성에 대한 형벌을 보장했지만,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은 그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첫 세대에게 자기 이름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2세대에 관해서는 20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2세대를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으셨고, 에스겔이 포로의 관점에서 해석한 미래의 심판에 대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20장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나 출애굽 전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정함과 이 모독은 고대 이스라엘의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은 백성에게 토라의 의미를 가르치는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결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일반적인 죄악을 망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거룩하고 속된 것, 그 결과 하나님 자신에게는 혼합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비해 눈에 띄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언급으로서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에는 국가의 눈에 잘못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한 신성함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복당한 나라가 숭배하는 작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신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라는 공개 메시지는 다음 22절에서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째 문제로 두겠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탈출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그의 백성을 고국으로 다시 데려가실 것이며, 그러한 능력의 나타남이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특별한 신성함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함이니라 너희가 들어간 민족들 사이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 열국 중에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곧 너희도 그들 중에서 더럽혔느니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면 민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며 열국 중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문제, 즉 엄청난 힘의 입증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만큼 강력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시편 126편과 2절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 중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되찾으셨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유배 생활은 끝났고, 유배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회복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2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포로 생활 중 하나였다면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동기는 단지 그의 모독적인 이름의 문제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유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망명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설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썩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는 데 있어서 아주 공정하셨습니다. 아니, 그의 명예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 생활이 끝나야 했습니다.

유배의 종식은 그의 오명을 청산하기 위한 신학적 필요성이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은 다가오는 유배 생활로부터의 귀환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유배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지만 당신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내가 당신을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매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결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주실 순전한 은혜, 구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이것이 구약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주신 기도의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 6장과 9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청원하는 기도에 자부심이 주어졌습니다. 즉,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특별하고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청원은 에스겔서 36장 2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서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민족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주기도문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새로운 증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에 비견되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존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교회의 삶의 사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그 희망이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28절은 이제 우리 섹션의 앞부분인 개인 메시지 17~19절에서 설명한 첫 번째 문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 .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전에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때 겪었던 동일한 문제를 다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와 더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큰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었나요? 따라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문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에 외적 답이 필요했다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첫 번째 문제에는 내적 답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 이상이지만 본질적으로 내부 답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고 모든 일을 깨끗이 닦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우상에게서 정결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뿌린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부정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에는 더러움을 치료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는 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51편과 7절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역시 용서에 대한 은유적 사용을 반영합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씻음,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로 내버려 두는 것. 그러나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용서받는 것도 한 가지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옛 죄와 역사가 반복되는 일은 없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의 내면화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선, 그 관계, 그래서 그들의 불결함은 과거의 일이었고, 당신은 용서받았고,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이것은 매우 특별한 약속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11장에 다시 넣고 587년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책의 두 번째 판에 다시 넣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에스겔서를 기억합니다. 11:19 및 20,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안에 새 영을 주며 내가 그들의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순종하게 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서는 두 번이나 말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루어진 이 약속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롭고 지속적인 민감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완고한 마음 대신에 이 부드러운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민감성이 생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의 표현일 것입니다. 27절에서 새 영은 나의 영이라 해석하였으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관련된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공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 땅이라는 옛 삼각관계가 다시 성립될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의 이상, 양면 공식,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8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본토로 돌아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 관계는 완전한 성취, 완전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신약성서의 주기도문에서 23절을 인용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5절부터 26절까지도 잘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인터뷰에서, 에스겔 30장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 3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의 시작이 물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인 36절 25절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내가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리리니 너희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리라.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 곧 새로운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는 것인데, 이는 에스겔 36장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 새로운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용서로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영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에스겔 36장을 읽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당신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가르침과 나의 작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가 이 메시지의 다음 부분입니다. 29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 에서 구원할 것이며 , 곡식을 모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이 들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그들이 다시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기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우선, 29절에는 25절에서 28절까지의 이중 대답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했던 최초의 용서와 실제로 이 새로운 영의 지속적인 제공을 통해 여러분을 모든 더러움 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 나의 영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1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 땅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땅까지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더럽혀지고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새로운 비옥함으로 땅에까지 확장됩니다. 사실, 기근은 과거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신에 대한 견해에 따른 심리적인 자존감 상실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는 이방인 중에서 기근의 수욕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1절과 32절은 이 전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그 부분은 31절과 32절에서 도전적인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죄악과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내가 그들을 유배지에서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를 끌어당긴 당신의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놀라라.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서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악된 과거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후회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고 늘 후회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건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6장에서 했습니다. 16장에서 다시 했습니다. 20장에서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그 후회는 다시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을 항상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반영한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다.

그리고 나서 32장은 22절에서 앞서 말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끌어당겨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도록 격려할 수 있는 어떤 미덕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길은 31절에 언급된 최악과 가증한 행위뿐이었습니다. 순전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도 있었던 부패함이었습니다. 값없고 과분한 은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요인,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서 43절과 25절에는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같은 모티브가 나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를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관해 에스겔이 말한 내용으로 바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사실 그것이 이사야서 43장과 25절의 용서에 대한 동기였습니다. 그런 다음 33장과 3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서 일어날 변화를 더욱 탐구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더 이상 더럽혀지고 타락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33-36절. 내가 이 두 가지 치료법으로 너희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성읍들에 사람이 살게 하며 황폐한 곳에 재건되게 하리라.

황무했던 땅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황폐한 대신에 경작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황폐한 땅이 에덴동산처럼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량하고 황량하게 폐허가 된 마을에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요새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황폐한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를 행하리라.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땅이 예전처럼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을 때 땅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이 전체 지문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들은 야훼가 위대한 변혁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소하고 약한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37부터 38까지는 변화라는 주제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유배자들이 분명히 겪었던 별도의 목회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되돌아보면, 끔찍한 인명 피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학살에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배자들의 마음에 걱정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에스겔 12장 16절은 몇몇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을 피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적은 수의 군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의 캠페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이 돌아온 후 그 수가 늘어나도록 기도할 마음이 열려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조국의 마을들도 결국 사람들과 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해 이 일을 나에게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무리처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양떼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정해진 축제 기간에 모이는 양 떼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폐허가 된 성읍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문제에 민감하십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인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배되기 전 예루살렘의 축제 기간에 대한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자들은 축제 기간이 어땠는지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바칠 희생을 위해 많은 양 떼가 이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선지자 에스겔이 가졌던 기억이었으며, 많은 유배자들이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 이전 예루살렘의 정상적인 모습의 일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인구의 엄청난 증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폐허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날 때, 유배자들은 그들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이 책의 37장을 다루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세션 18, 이스라엘의 갱신입니다. 에스겔 36:16-38.